



▶ 불이 터질듯 미소를 머금고 있는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 가야산 출기인 상왕산 기슭에 자리잡은 보원사터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등이 지나간 시간을 이야기 하고 있다.

### 부처님 미소 볼 터질듯...

## 서산 마애삼존불의 本寺



패시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잇려진가람 탐험

보원사지



봄소식을 기다리다 못해 남하하기로 하였다. 꽃샘바람 속에서 3·1민족공동행사를 치른 후, '봄은 / 오는 것이 아니라 / 엄중한 시련 속에서도 있고 있더라 / 겨울 새벽 수직으로 뻗은 배나무 가지가 / 언 땅 밑에서 길어 올린 / 빙어 눈 같은 알갱이 씨봄을 / 아스라이 하늘 끝까지 송신하고'라는 어느 시인이 보낸 봄 메시지를 읽고 문득 파릇한 풀 내음을 예감하였다.

무척처럼 싱싱한 봄기운을 밀어 올리는 서해 물결. 그 시린 물빛에 마음을 씻으며 서산 땅 세심동(洗心洞)에 이르자 개심사(開心寺) 물소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가란다. 열기 무섭게 스스로 달리는 문. 새싹들은 언 땅 속에서도 '빙어 눈 같은 알갱이 씨 봄을 하늘 끝까지 송신하는' 데, 탐진에 짓눌린 세속 도시의 주민은 개심사 문턱에 이르러서도 마음의 들쭉거림을 뺄지 못한다. 어쩌랴 웅현골 느낌 나무들은 산비탈에 기대서 손사래를 치는데, 이 땅의 춘삼월은 막무가내로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보원사 들목의 미륵장승님은 언제나 그 때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낭당 돌무지 위에 발목을 들고 중생의 보관을 머리에 인 채 56억 8천만 년을 낭랑 아스한 미소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탑으로 쌓아올린 돌무덤은 이 들목을 지나친 나그네들의 발길일 것이고, 가슴에 얹힌 호모 두 손은 미륵불에게 올린 필부필녀의 정성을 영원으로 접수했다

는 수인(手印)일 것이다. 설레는 마음 여기서 지체할 수 없다. 웅현골짜기에서는 날마다 무슨 좋은 일 있는지 계곡의 깊이를 더할수록 만나는 것 모두가 웃음을 머금고 있다. 얼음장에 박힌 물물들도 계곡에 박힌 산물들도 웃거나 웃음을 잡고 있다. 잿빛하늘을 날아가는 산비둘기도 무언가를 숨긴 듯하다.

웅현골 미소의 진원지는 개울 건너편 계단 위의 인암(印岩)이다. 불이 터질 듯 미소를 머금고 있는

존불'이라는 전각의 당호는 차라리 어색하다. 국보 제84호라는 대접도 축스럽기만 하다. 그저 그렇게 이승을 지나치다가 우연히 이 계곡에 들러 심심풀이로 하늘 이야기, 땅 이야기를 주고받는 하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 통일신라시대 화엄 10찰중 하나

### 당간지주·백제양식 5층탑 등 정보 수두룩

### 전국최대 석조(石槽) 사찰규모 웅변

세분의 마애부처님! 전각의 창문이 서산에 빗긴 햇살을 가리지 않았다면 바위에 기대선 채 함박웃음을 머금고 있는 세 분 부처님들의 미소는 계곡 밖에서 길을 알려주던 영남없는 아낙들의 그것일 것이다. 애칭대로 '백제의 미소'이다. 끼어들고 싶은 심정을 주체할 수 없는 데도 망설이는 것은 영혼의 안팎에 너무 걸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서산 마애삼

존'에 이렇게 한갓진 절터가 온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천년의 시공을 초월한 미소인 마애삼존불의 본사(本寺)로서, 통일신라 화엄10찰의 하나로서 결코 손색이 없는 것이다. 계곡 입구의 미륵장승이나, 마애삼존불의 미소를 닮은 질박한 총칭인의 인심이 천년의 절터를 지켜 온 것이다.

보원사의 장건 연대와 폐사 내력에 관해서는 밝



▶ 아무런 장식없이 수풀 속에 장중하게 자리잡은 석조(보물 제402호).

가야산 출기인 상왕산(象王山) 기슭 서남쪽 운산면 웅현리에 자리한 보원사터(普願寺, 사적 316호). 깊은 산중에

허진 문헌이 없어 제대로 알기 어렵다. 한때 고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마애삼존불의 본사이며, 출토된 유물들의 면면으로 보아 백제 시대에 창건되어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법당을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69년 보원사지 국당지 남쪽 건물터에서는 6세기 중엽 백제시대의 금동불입상이 출토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918년 금당지에서 가자간 거구의 통일신라시대의 철불 두 분이 소장되어 있다.

보원사지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4.2m의 늘씬한 자태를 자랑하는 당간지주이다. 길옆에 바짝 붙어 여기가 간단치 않은 사지임을 알려주는 당간

지주는 당간을 받치는 간대(杆臺)까지 남아있어 보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최근에 복원한 받침들의 색깔과 당간지주의 색조가 대비되어 눈에 거슬린다. 갈대 우거진 짐검다리를 건너면 멀리에서도 그 웅장함이 눈에 띄는 오층탑(보물 제 104호) 이 다가선다. 5층의 지붕돌이 상승감을 이루며 치솟는데 피뢰침 같은 활주까지 남아 있어 이 또한 원형에 가까움을 짐작케 한다. 백제의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 초기의 석탑으로 하층 기단의 면석에 열 두마리의 사자상을 새긴 것이 이채롭다. 사자상은 보통 부도의 기단석에 새기는 것인데 드물게 석탑에 사자상을 돌린 것이다. 그런데 어느 돌출 이교도의 짓인지 사자상 일부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여기까지 찾아와 헤벌이러니, 도대체 무슨 인과를 보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보원사의 주인은 역시 절 터 맨 뒤쪽 산 밑에 자리 잡은 법인국사의 부도인 보승탑(보물 제105호)과 부도비인 보승탑비(보물 제106호)이다. 산 밑에 축대를 쌓아 말끔하게 정리되었는데 양옆의 허름한 한석지붕돌이 폐사지의 출출함을 자아내게 한다. 부도의 주인공 법인국사(900~975)는 나말여초의 고승으로 고려 광종의 국사를 지낸 탄문(坦文) 스님이다. 스님은 화엄종의 승려로 정진하던 중 949년 광종의 즉위와 더불어 왕사가 되었으며, 이때 광종의 즉위를 기념하여 철조장륙상을 조성하여 보원사에 봉안하였는데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보원사터 장륙철불좌상이다. 975년 임종을 앞둔 탄문스님이 보원사로 떠나자 광종은 태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개경의 교외까지 나와 그를 전송하였다고 한다. 스님은 그해 3월 보원사에서 열반하였으며, 그의 영향력을 기려 978년 보승탑과 부도비가 건립됐다.

보원사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성보 중의 하나는 절 터 오른쪽 수풀 속에 놓여진 석조(보물 제102호)이다. 엄청나게 큰 돌을 한 뼘 한 뼘 정으로 쪼아 길이 3.5m 깊이 90cm, 폭 1.8m의 거대한 석조를 만든 것이다. 아무런 장식이 없어 오히려 장중한 맛을 주고, 군데군데 금이 가 세월의 덧없음을 일깨워 준다. 보원사지 석조는 전국 제일의 것으로 전설기의 보원사 승려가 1천여 명이 넘는 거찰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3편방이 넘는 절터에는 보리밭과 비닐하우스가 군데군데 숨어 있지만 사치로서 어색하거나 쓸쓸하지 않다. 아마도 그것은 수십 그루의 감나무 고목이 절터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인·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당진 안국사지 편

#### 보원사지 가는길

보원사지는 서해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서산, 당진(에서 내려 운산 고풍저수지와 터널을 거쳐 웅현계곡으로 2km정도 올라가면 된다. 서산 → 운산 → 마애삼존불 → 보원사터를 다니는 버스도 있다. 철도로는 삼포 역에서 내려 수덕사 입구를 지나쳐 서산 목장 길을 달리다가 운산사거리에서 역시 고풍저수지와 터널을 거쳐 웅현계곡으로 오르면 된다.

##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 금강염주

### 2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잡기와 악귀를 물리치는 금강염주

#### 불자님의 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가지가 꼭 이루어진다고 전해되는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향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렴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와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강력한 氣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주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찰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어지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통기소포로 전속이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관훈동 177 대원 B/D406호

##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안하세요.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생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만든 브리트를 사용하신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과 같이 사용하고 3일만 사용하면 입 냄새는 없어지고 7일만 사용하면 치통, 충치, 찬음식 뜨거움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미백 효과도 있어요. 1set면 1년이상 사용하는데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스님 저도 남는것이 없어요. \*농협 : 360-12-046446 최 능 우

##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는 은행석편지입니다. 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붓어넣으면 붓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붓어는 10분내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꼭 멈춥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요.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하얀얼굴로 미백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가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더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의원에서 검증을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입니다.

★농협:1143-12-049474 송명화